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첫날맞이 일석예배 (성찬예식)

2024년 10월 1일(화) 새벽 5:30에 10월 첫날맞이 일석예배가 있습니다.

3. 태신자 작정주일(1주)

다음 주 주일예배는 태신자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4.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5.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6. 2024년 10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8.29 ~ 9.29)

- 10.05(토) 오수빈 양씨 10.13(일) 전진우 양씨 10.16(수) 이재아 양씨
- 10.23(화) 한효성 성도 10.27(일) 김막동 권사(-9.25)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9/29	선교 헌신예배
10/01	첫날맞이 일석예배 (성찬예식)
10/06	태신자 작정 주일(1) 한글과 교회와 선교
10/09	이허브코업 가을소풍(초막골공원)
10/13	태신자 작정 주일(2)
10/20	태신자 작정 주일(3)
10/22	이허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10/27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성전 장식 시작
11/01	다나엘 21일 기도회 (11/1-21일) 첫날맞이 일석예배 (성찬예식)
11/03	태신자 초청의 주간(1)
11/05	이허브코업 장기모임(주사랑교회)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각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곡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09/29 이광근 안집사
- 10/06 임명자 집사
- 10/13 임명숙 집사
- 10/20 김혜숙 권사
- 10/27 정애자 권사
- 11/03 박제연 집사
- 11/10 이광근 안집사



주사랑 7권 39호 | 2024년 9월 29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아홉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집례자

※ 목 도 시편 19:7~10,14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27장 다 같 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83. 빌립보서 4장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294장 다 같 이
(하나님은 외아들들)

대표기도 이광근 안장사
(남전도회장/재정부장)

성경봉독 마가복음 9:38-50 (신 70) 이광근 안장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스며들어가 맛을 내는 삶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288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성결 어린이)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급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문동잔 임명자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 임명숙 임명순 정지운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재연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고예순 김혜숙 이광근 박재연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한창수
/ 아하브코업

구역헌금 : 김혜숙 박재연 임명순

선교헌금 : 고예순 안양중앙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아하브코업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5:1~14 (구 568)
말씀제목 자하교회 성도들의 목소리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하브코업
성경봉독 야고보서 5:13-20 (신 376)
말씀제목 치료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도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경배와 찬양 구역별 찬양
성경봉독 왕상 12:25-33 (구 1035)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자기 방어와 거짓과 타락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하브코업
성경봉독 열왕기하 8:1~15 (구 574)
말씀제목 한 가정에서 한 나라까지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29일 일 왕하 5:1-14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하여

30일 일 왕하 5:15-27 잠깐의 산란 믿음이란

1월 화 왕하 6:1-14 하나님의 능력과 도임

2일 수 왕하 6:15-23 상황 변화시키는 하나님

3일 목 왕하 6:24-7:2 재앙 속에서도 건져내는 힘

4일 금 왕하 7:3-20 하나님의 주권과 왕

5일 토 왕하 8:1-15 한 가정에서 한 나라까지

6일 일 왕하 8:16-29 잠깐의 재앙 타락과 파국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p>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p> <p>정성 목사(예배)</p> <p>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p>	<p>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p> <p>이재우(재미재)</p> <p>홍수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p>	<p>해외선교(모로코)</p> <p>모로코 컴퍼션 파송 소리 단이</p>	<p>해외선교(타지키스탄)</p> <p>타지키스탄 안타르 파송 평민도선교사</p>	<p>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p> <p>기성 총회 향훈</p> <p>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선교교회개척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교회</p>
---	--	---	--	--

- ⑥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자 자원예물, 감사예물 등 드린 제물이 너무 많아 제사장이 부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은?(대하 29:34~36)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 ⑦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성전의 절기로, 출애굽의 때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피해했다고 하여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켰던 절기는?(대하 30:5)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다
- ⑧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에브라임, 므낫세, 스블론 지파의 많은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채 유월절 양 고기를 먹게 되어 규례를 어긴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했나요? (대하 30:18~20)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하여 이르되 ()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
- ⑨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두 번째 칠 일 동안 지킨 무교절의 결과는?(대하 30:26~27)
예루살렘에 ()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에 이르렀더라
- ⑩ 히스기야 왕은 성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집행하기 시작했나요?(대하 31:3~4)
또 ()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
하나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남 유다의 12대 왕으로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저지른 죄악은?(대하 28:1-3)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을 부어 만들고 또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② 남 유다의 아하스의 범죄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의 침공을 허락하셨는데, 이때에 포로로 끌려온 남 유다의 백성을 돌려보내서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는 누구인가요?(대하 28:9-10)

그 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

③ 남 유다 13대 왕으로 29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통치를 했던 왕은?(대하 29:1)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④ 히스기야가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하 29:3-5)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⑤ 성전의 복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대하 29:17~19)

()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일에 여호와와 나실에 이르러 또 팔 일 동안 여호와와 전을 성결하게 하여 ()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온 전과 ()과 그 모든 ()들과 떡을 ()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와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15)

성 루시안(St. Lucian of Antioch, A.D.240~312)은 초대교회 특히 동방정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A.D. 311년 맥시미아노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루시안이 끌려나가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황제는 루시안이 훌륭한 학자임을 아껴서,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배교하면, 목숨을 살려 주고 부귀까지 주겠노라고 약속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루시안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재판하는 법관 앞에서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그를 면회하러 찾아온 성도를 보고, 자신의 몸은 널판지와 쇠사슬로 묶여 누워 있으면서도, 도리어 신자들을 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자신의 가슴을 성찬대로 삼아, 그 위에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는 그 다음날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시체에 큰 돌을 매달아 깊은 바다에 던져 넣었지만, 2~3일 후에 시체는 다시 떠올라 장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들어와도, 유혹이 눈웃음쳐도, 죄가 미혹해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 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찬송가 찬 365장	다	같이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대표기도	말	은이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성경봉독 왕상 12:25~33	말	은이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말씀인도 자기 방어적 타락	말	은이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합심기도	다	같이	971	솔로몬의 통치 (~BC 931)	왕상 1~11장
헌금기도 찬 484장	말	은이	931	복조 1대 왕 예로보암(BC 913)	왕상 11장
주기도문	다	같이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예로보암이 단과 벳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둠으로 영적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궤와 함께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BC 2000년경 가나안 땅에서 보편적으로 섬겨왔던 우상인데 다산과 힘을 상징합니다. '엘'은 종종 '황소 엘'이라고 언급되며 '바알과 이삿이 결혼하여 수송아지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는 여호와와 종교와 바알 종교를 적절히 혼합해 만들어낸 혼합종교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자신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종교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성찰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근거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25~27).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로보암은 제일 먼저 세겜에 수도를 세우고 그곳을 요세화 합니다. 느부엘의 성을 쌓으면서 북쪽이나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길르앗을 보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건설 노역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지만, 예로보암도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세우고 성을 쌓게 되면서 백성들의 고된 노역이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웠던 예로보암은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25절).

예루살렘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로보암은 한 가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 왕가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남북이 갈려져서 각각의 수도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만이 합법적인 제사 장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했습니다. 예로보암은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26~27절).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반역의 마음을 품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예로보암을 세우신 하나님도, 따르는 백성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부족은 근거 없는 거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곡과 타락의 발단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도록 신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방어적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28~30).

예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지금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이스라엘 열지파가 언제든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대이동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막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로보암은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오직 자신의 왕권 유지에만 더 관심을 쏟습니다.

결국 예로보암은 백성들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벳엘과 단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속이게 됩니다(28절). 백성들의 눈을 거짓으로 기만하여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30절).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온상이 되고, 심판과 멸망의 근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욕심이 앞서면 거짓과 기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는 신뢰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부정과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신앙이 자기 맘대로 해도 좋다는 기복적 종교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인 자기기만의 정당화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31~33).

예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벳엘'과 최북단인 '단'에 산당을 세우고(신 12:5~7), 십계명을 무시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 두었습니다(출 20:4-5). 게다가 레위 자손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신 18:1-8), '자기 맘대로' 초막절 날짜를 변경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레 24:34-36). 이제 예로보암에게는 절대 순종의 대상인 살아 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왕권 유지를 위해 자신이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우상만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도(왕상 11:38),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미혹하여 혼합종교의 신봉자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 번 잘못 내딛은 걸음을 돌리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결론

인간을 타락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두려움, 거짓, 기만입니다. 사람이나 지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찾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만이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던 신앙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역사를 외곡하고, 주체사상과 체제숭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의 우상숭배로 고통을 주는 북한의 모습과도 너무 유사합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냄을 잊지 않습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